

‘자본의 구조조정 방식 변화, 간접적 고용조정 전략’

- 금융권 노동시장 고용유연화 사례를 중심으로-

김 중 진(한국노동사회연구소 연구위원)

1. 문제의식

□ 간접적 고용조정의 제도 개선&규제

○ 문제 의식 출발

- 1997년 이후 상시적 구조조정 시스템 정착. 2008년 경제위기 상황 대형 노사분쟁 발생하지 않는 이유 → 공공, 금융, 기업 부문 상시적 구조조정 시스템 작동 결과
- 자본의 구조조정 방식이 간접적 고용조정을 통한 노동시장 유연화 방식으로 변화. 2015년 최근 정부의 정리해고 요건 완화(취업규칙 변경) 입법화 움직임은 또 다른 대표적인 간접적 고용조정 현상의 사례임.

“개별 기업은 ① 정리해고 요건이 충족되지 않아도 구조조정을 시작할 수 있고, ② 기업이 원하지 않는 고비용 또는 저효율 근로자를 대상으로 선정할 수 있으며, ③ 종국적으로 그들을 현직에서 배제하거나 퇴직하도록 함으로써 업무 능력 부족자에 대한 엄격한 해고 제한 요건을 회피할 수 있게 된다”¹⁾

○ 구조조정 문제점

- 상시적 고용조정 수단 : 강제적, 직접적 고용조정 수단(정리해고), 간접적 고용조정 수단 (①전직: 후선배치, 역직위, ②휴직: 직위해제, 대기발령, ③사직=권고사직&합의해지=희망퇴직)

[*법리 규정 : 노동법적 법리 규정]

: 사직은 강제적, 직접적 관점에서 해고 관점에서 검토

[*법리 규정 : 민법적 법리 규정]

: 합의해지는 근로계약 종료 쌍방 의사 합치, 일방적 간접적 관점에서 검토

* 이 글은 국회 희망없는 절망퇴직 사례발표회 발제(2015.3.24.)를 위해 기존 필자의 원고(2014.9.24.)를 수정 보완한 것임을 밝힘.

1) 김진, “상시적 구조조정 수단으로서의 금융기관 ‘후선 발령’의 정당성”, 「노동법실무연구」 제1권, 노동법실무연구회, 2011, 33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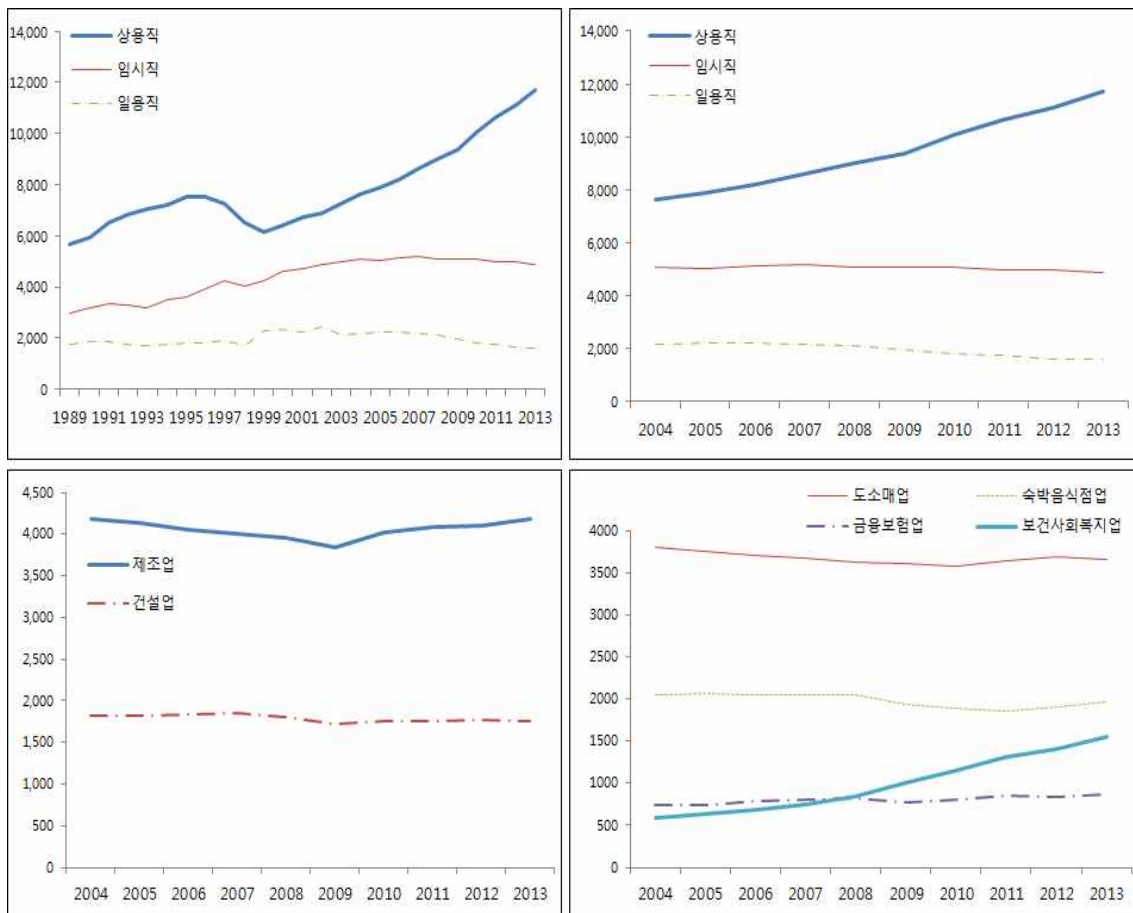
2. 구조조정과 간접적 고용조정 실태

□ 한국사회 노동시장 흐름과 상황

○ 노동시장 구조변화와 특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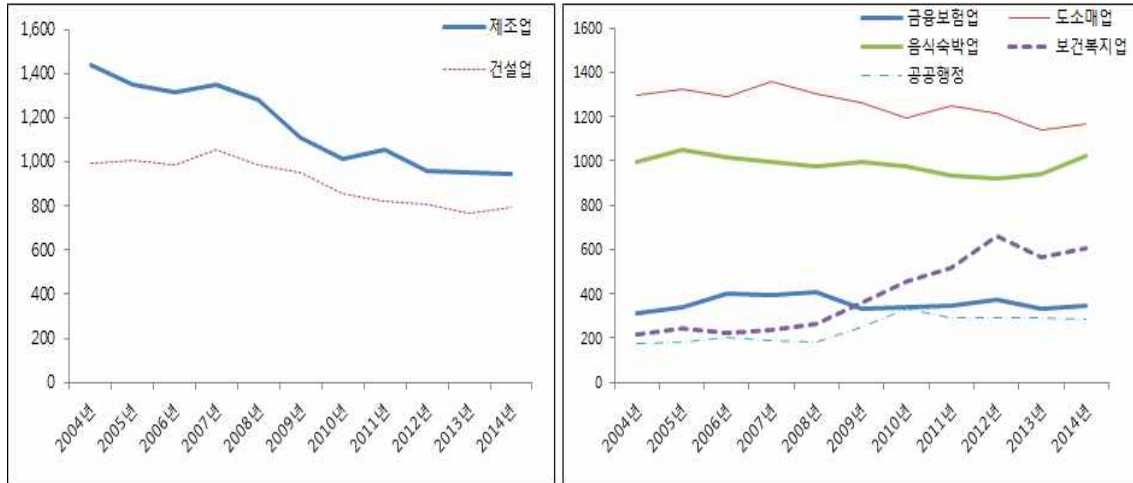
- IMF 외환위기를 기점으로 한국 사회의 노동시장 흐름은 두 가지 현상을 확인 할 수 있음. 먼저, 국내 고용규모 차원에서 보면 IMF 외환위기 이후 상용직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이 확인됨. 1987년 노동체제가 형성되고, 노조 조직률이 가장 높았던 1989년 이후 상용직 노동자(정규직/무기계약직) 규모는 IMF 구제금융 시기를 제외하면 지속적으로 증가했음.

[그림1] 한국의 노동시장 변화 - 고용 및 산업별 취업자 추이 비교(2004.3~2014.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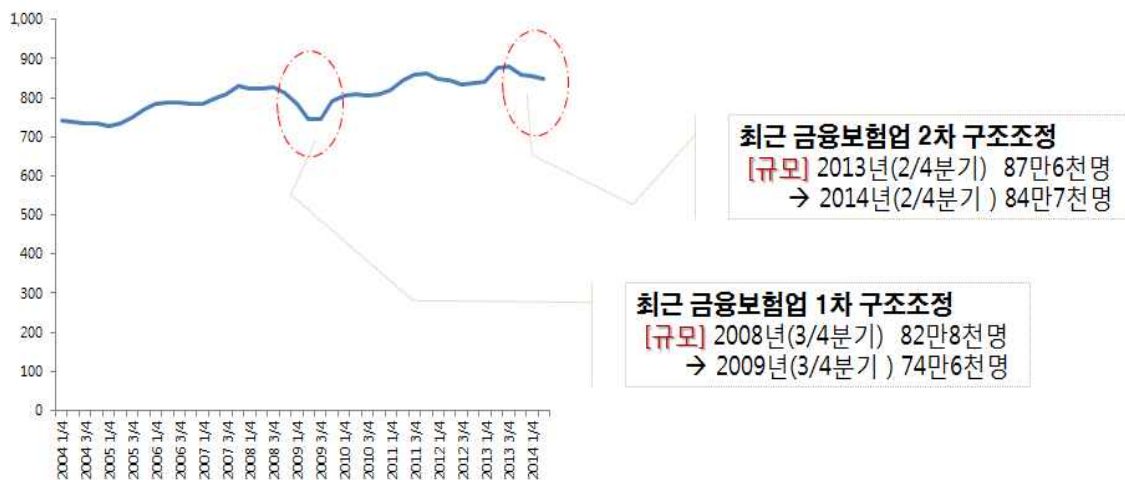
* 주 : 통계청 KOSISI 고용형태별 산업별 원자료 재분석

[그림2] 한국의 산업별 노동시장 변화 - 비정규직 추이 비교(2004.3~2014.3)



*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 부가조사 각 년도별 자료 재구성

[그림3] 금융산업 금융보험업 종사자 취업률 변화 : 2004~2014



* 자료 : 통계청 KOSISI 산업통계 경제활동인구 취업률 추이 원자료 재분석

- 기간제 노동자가 포함된 임시직의 경우 2007년 비정규직법 도입 이후 그 규모 자체는 정체 내지 감소 현상을 확인 할 수 있음. 2014년 3월 기준으로 한국의 비정규직 규모는 약 822만9천명(44.7%)이며, 여성 비정규직은 442만8천명(53.8%, 기혼여성 342만명, 여성 비정규직의 60.3%) 정도 됨.
- 문제는 한국 노동시장 구조 변화의 또 다른 특징은 산업간 고용의 내적 차이 있다는 점임. 예를 들면 제조업은 2008년과 2009년 경제위기 이후 잠시 고용규모가 하락했을 때를 제외하고 일정 규모의 고용을 유지하고 있음. 반면 서비스업의 경우 내적 차이가 확인되는데, 보건 및 사

회복지업의 사회서비스 고용규모가 대폭 증가한 것을 확인 할 수 있음.

- [그림3]에서 알 수 있듯이, 금융권 취업자 수 추이(2004.4-2014.4)를 살펴보면 2008-2009년 글로벌 금융경제위기 시기 이후 취업자 수가 증가하다가, 최근 2013-2014년 시기에 취업자 수가 감소하는 경향(?)이 나타나기 시작했음.

□ 최근 구조조정, 간접적 고용조정 실태

- 최근 2년(2013-2014) 사이 언론에 알려진 주요 민간 부분의 산업별 구조조정 인력은 약 31,278명(통신업 8,820명, 제조업 3,677명, 제2금융 17,426명, 제1금융 1,355명) 정도로 확인 됨(* 생명보험사 설계사인 특고 종사자 약 23,943명 미포함 숫자).

[표1] 주요 대형 민간 사업장 구조조정 현황(2013-2014, 단위: 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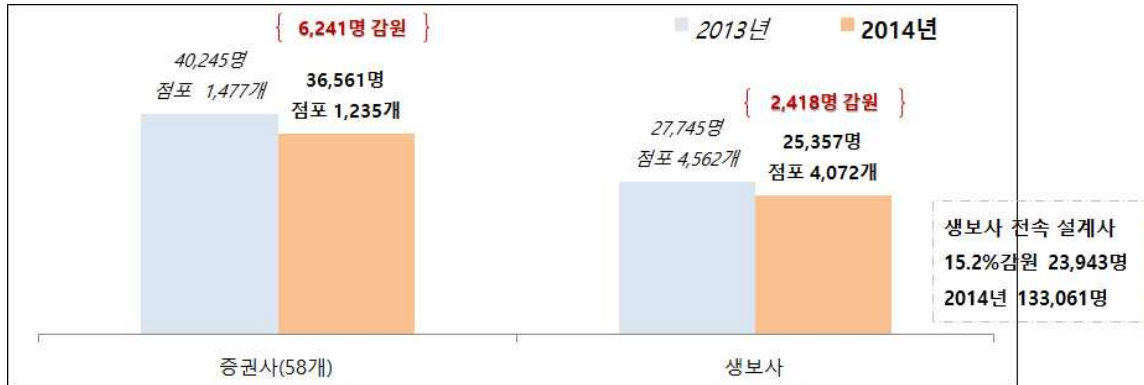
제조업	3,677	건설	8,632	증권/투자	5,153	생명/카드	3,641
현대중공업	1,500	삼성물산	600	삼성증권	485	삼성생명	1163
포스코플랜텍	300	박산건설	190	부국증권	47	한화생명	753
두산인프라코어	100	풍림산업	250	대신증권	435	교보생명	626
두산중공업	100	삼부토건	480	KTB증권	100	한화손보	65
STX조선해양	600	남광토건	210	유진증권	50	알리안츠	201
하이디스	777	우림건설	120	한화증권	330	하나생명	51
한국GM	300	성원건설	40	동양증권	650	삼성화재	150
		삼안	1040	SK증권	200	MG손보	5
통신사	8,820	LIG건설	130	NH증권	636	신한생명	88
KT	8,320	우방	32	현대증권	307	ING생명	212
팬택	500	쌍용건설	771	신한금투	118	미래에셋생명	30
SK(예정)		동양/건설	85	하나대투	117	우리아비바생명	107
		삼환기업	357	우리투자	412	신한카드	90
		경남기업	936	유안타증권	740	삼성카드	100
		삼환까뮤	72	HNC투자증권	212	은행	1,355
		금호산업	1204	하이투자증권	250	HSBC	230
		극동건설	441	이트레이드증권	24	씨티은행	652
		동양건설산업	394	코리아에셋투자증권	21	SC은행	200
		진흥기업	291	KB투자증권	19	외환은행	113
		한일건설	212			신한은행	160
		동문건설	148				
		신일건설	65				
		범양건설	73				
		중앙건설	88				
		휴다임	275				
		성지건설	128				

* 자료 : 각사 구조조정 관련 언론기사, 노동조합 자료 재구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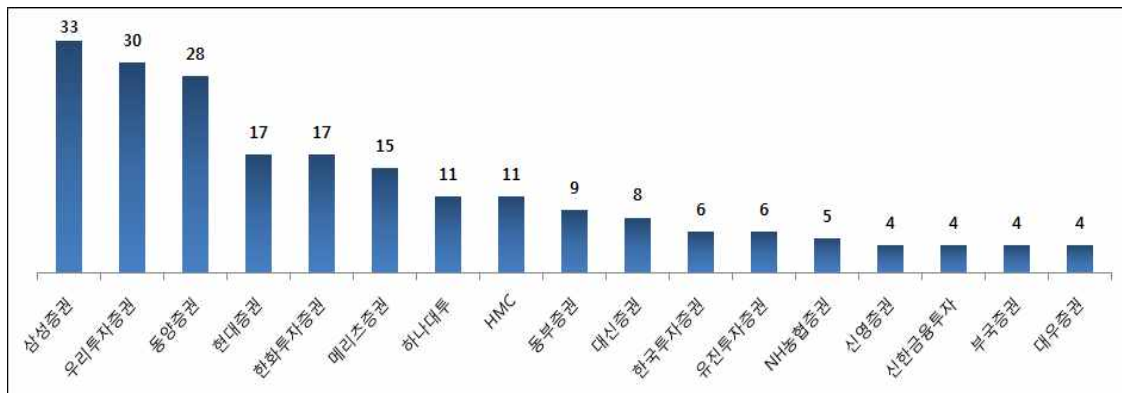
- 금융감독원(2015.2.15.)의 국내 58개 증권사 직원 수를 보면, 최근 2년간(2013-2014) 증권사 감원 인원 6,241명이 감원된 것으로 확인됨. 2013년 증권사 인력은 2013년 40,245명(2,557명▼)이었으나, 2014년 36,561명(3,684명▼)으로 각 년도별로 인력이 감소되었음.

특히 이 시기 자기 자본 규모 10대 증권사 감축 인원 전체 60.7%(2,239명)나 됨. 한편 최근 2년 상이 증권사 지점 수는 242개 감소(2013년 1,477개 → 2014년 1,235개) 되었음.

〔그림4〕 금융권(증권, 생보) 점포 및 인력 구조조정 현황 : 2013-2014



〔그림4〕 최근 금융권 증권사 영업점 축소 현황 추이 : 2013.6-2014.6(단위: 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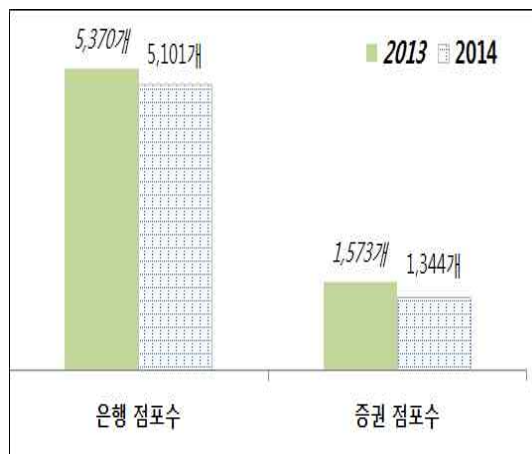


* 자료 : 재벌닷컴 매출 상위28개 증권사 현황 영업점(지점, 출장소, 사무소) 축소 발표자료(2014.9.10.) 재구성



지난 1년간 시중은행 인원 감소

	2013년 6월	2014년 6월	감축 인원
국민	21,564	21,414	150
신한	14,650	14,600	50
우리	15,158	15,223	65명 증가
하나	9400	9306	94
외환	8036	7881	155
씨티	4229	3587 (7월 기준)	642
SC	5605	5147	458
합계			1484



* 자료 : 중앙일보 기사(92014.9.17), 아시아투데이 기사(2014.9.11.) 재구성.

- 한편 최근 2년(2013-2014) 생명보험사 감원 인원은 2,418명(전속 설계사 15.2% 감원)되었

는데, 2013년 27,745명(전속 설계사 157,004명)에서, 2014년 25,327명(전속 설계사 133,061명)으로 인력이 감원되었음. 이 시기 생보사 점포 수는 491개(4,072개 → 4563개) 감소되었음. 특히 국내 빅 3생명 보험사 점포 수는 △삼성생명 975개 → 826개(15.2%, 149개), △한화생명 778개 → 648개(16.7%, 130개), △교보생명 743개 → 685개(7.81%, 58개)로 줄어들었음.

□ 금융산업 구조조정 전략적 형태와 방식들

○ 금융권 구조조정의 내외적 요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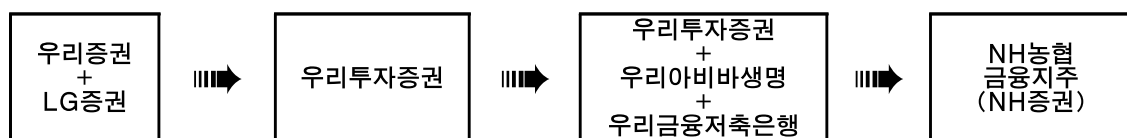
가. 외적요인

- 금융정책의 규제완화(대형화, 겸업화, 복합점 허용, M&A 규제 활성화, 등)
- IT 및 영업 경영 기술 변화, 무점포 지점 운영(예: 키움 증권)

나. 내적요인

- 증권업 진출 양적 확대&공급 과잉(대기업 증권업 진출 : HMC, 은행의 증권업 진출: 우리투자증권), 기업간 M&A와 과도한 인력 경쟁(경력직 고임금 스카우트 비용 과다 지출)

[그림2] 최근 금융권 인수·합병 대표적 사례 - 인력 구조조정 초래



- *주 : 1) 금융권 인수 합병 과정에서 구조조정(점포 및 인력 축소) 발생 → 우리아비바생명, 우리투자증권, NH농협증권 희망퇴직 진행.
- 2) 우리파이낸셜 → KB금융, 우리자산운용 → 키움증권, 우리F&I → 대신증권으로 인수합병.
- 3) 현대해상 2015년 하이카다이렉트와 합병 후 구조조정 예상(현재 컨설팅 진행)

○ 금융권 구조조정의 경영 현상들

가. 금융산업의 성과주의 경영전략 통한 노동시장 유연화 전략 활용

- 수량적 유연화&기능적 유연화(인사관리: 전환배치 → 후선위, 역직위 → 자발적/비자발적 이퇴직, 권고사직 등: 대신증권), 임금 유연화(성과연봉제, 임금피크제 등: 악사손해보험), 외부화(아웃소싱 등).

나. 최근 ‘직접적 구조조정 방식’에서 ‘간접적 구조조정 방식’ 활성화

- 과거 노사관계 형성된 사업장(유노조) 중심에서 비노사관계 형성(무노조) 사업장에서도

폭 넓게 활용되고 있음.

3. 정책적 개선과제

□ 간접적 고용조정의 제도 개선&규제 필요성

○ 간접적 고용조정 수단 규제 필요성

① 법리적 측면

- 기업 간접적 고용조정 기업 효과 문제 제어 필요. 근로계약관계 법률행위 종료 문제. 사직(제한 법리)과 합의해지(제한입법) 등 해고 제한 법제 필요²⁾ ⇨ 노동조합은 현재 ‘희망퇴직 규제법안’ (가) 요구[*but] 정부는 정리해고 완화/취업규칙 변경 시도]

② 정책적 측면

- 개별 기업의 구조조정(희망퇴직, 명예퇴직 등) 현황을 공시 → 2014년 3월부터 시행되고 있는 고용형태 공시제도에 사업장 성별 비정규직 규모(직접고용, 간접고용)뿐 아니라, 전년도 구조조정 규모를 추가적으로 공시하도록 고용안정법 개정(사회적 감시)

2) 해고를 피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하더라도, 후선배치나 역직위 처분 등과 같은 인사조치는 무제한적으로 허용될 수 없고 근로기준법에 의하여 규제되어야 한다. 즉, ① 후선배치나 역직위 제도를 도입하는 것은 근로조건의 불이익 변경으로 취급되어야 한다. 따라서 취업규칙의 불이익 변경 절차나 단체협약의 체결 절차를 거쳐야 한다. ② 강행법규에 위반하거나 그 적용을 회피하기 위한 후선배치나 역직위 제도는 무효이다. 설령 이를 노동조합이 합의하였다 하더라도, 그에 따른 전직은 무효이다. ③ 후선배치나 역직위 제도의 도입은 업무상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만 허용된다. 가장 전형적인 경우는 기업의 적자 상황을 피하고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상대평가제를 도입하는 것일 것이다. ④ 근로자의 근무 능력 평가나 업적 평가는 객관적 기준에 의하여 공정하게 행해져야 한다. ⑤ 후선배치나 역직위 제도에 따라 전직이나 휴직 등 인사처분이 이루어지는 경우에도, 당해 인사처분의 정당성 유무는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과의 비교교량을 거쳐 판단된다. ⑥ 위 인사처분들은 당해 근로자에게 치명적인 불이익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사전 절차로서 인사 대상자인 근로자와의 협의가 필요하다(2014년 9월 24일, 국회 구조조정 토론회, 도재형 교수 발제문 8쪽)

[참조] 자본의 구조조정과 간접적 고용조정 전략 - 금융 노동시장 유연화

□ 노동시장 유연화 전략과 고용구조 변화

- 자본의 노동시장 유연화 전략(4가지)은 제조업과 비제조업을 가리지 않고 IMF 경제위기 이후 전 산업으로 확장되었으며, 금융산업의 경우 노동시장 유연화 4가지 전략이 가장 극명하게 드러나고 있는 산업 중 하나(*공공부문: 신공공관리론 시각에서 공기업 선진화/합리화 정책)
- 금융산업에서 노동시장 유연화 전략이 발생하는 요인 중 하나는 ‘하이-로드’와 ‘로-로드’ 경영전략과 맞물려 고용에 있어서도 동일한 문제가 병존했기 때문임. 특히 금융산업 정책(외적 요인: 규제완화, 대형화, 겸업화, 복합점 등)으로 금융산업 진출 확대(공급과잉)와 인수합병(M&A, P&A) 과정에서 기업의 구조조정(조직, 인력)이 요인 초래.

[그림1] 자본의 ‘노동시장 유연화’ 전략 활용 유형



- 실제로 우리나라 금융산업-업종-사업장의 구조조정(직간접적인 자발적&비자발적 희망퇴직, [표1]과 비정규직 고용의 일상화 현상(시간제, 기간제, 분리직군, [그림2], [그림3], [부록]), 성과주의적 임금체계 급격한 확대(성과연봉제, 임금피크제 등, [표2] [표3] 참조) 양상들이 발생하고 있음.

□ 금융권(증권) 고용관계 형성 맥락과 특징

- 문제는 이미 금융산업(특히 제2금융권)에서는 고용의 유연화 전략으로 ‘비정규직의 일상적 고용관행’이 고착화 된지 오래임. 고용구조 또한 ‘직접고용 비정규직’과 ‘간접고용 비정규직’ 활용이 고착화되었음([그림 4], 부록 [표] 참조).
- [그림6] 금융권 고용관계 모형을 보면, ‘직접고용 정규직-분리직군(무기계약)-기간제-인

턴’이라는 4가지 고용 사다리를 구성하고 있음. 최근 금융권의 ‘증권사’ 구조조정 과정에서 대표적으로 분리직군, 계약직의 구조조정이 동시에 진행되고 있다는 점도 함께 포착해야 함.

[그림2] 주요 금융권 300인 이상 종사자 사업장 비정규직 비율(2014.3)



* 자료 : 고용노동부 고용형태공시자료 원자료(2014.3) 재분석

[그림3] 금융권 노동시장 내부 사업장 내 고용관계 형성 도식(직접고용 중심 도형)



* 주 : 제2금융권 임금 수준은 각 업계 및 개별 기업별 차이가 있으나 일반적으로 ‘정규직’ 270~320만원, ‘분리직군’ 200~220만원, ‘계약직’ 150~170만원, ‘인턴’ 120~130만원 정도 수준에서 책정되고 있음.

[표1] 금융권 구조조정 사업장 인력 감축 현황 특징 비교(2014년 9월 당시 기준)

사업장	구조조정 대상 및 개요	규모 (명)	시기	비정규직 비율 (2014.3기준)	
				전체 비정규	간접고용 비정규
한화손보	근속 10년 이상 대상	65	2013	7.6%	2.7%
MG손보	근속 15년 이상 과차장급 대상	5	2014	28.1%	1.9%
삼성화재	근속 12년 이상 [2009년 60, 2010년 100, 2012년 150]	150	2013	3.2%	0.1%
알리안츠		201	2013	5.8%	10%
하나생명	입사 1년차 이상	51	2013		
삼성생명	희망퇴직	500	2013	30.5%	27.6%
	삼성생명서비스로 전직	500			
한화생명	5년만, 전체 6.3%	300	2014	5.1%	3.2%
우리아비바생명	전체 30% 추진		2014	31%	26.6%
한화증권		330	2013	14.6%	5.6%
동양증권	급여 삭감	650	2014	12.8%	7.9%
SK증권		200	2013	32.9%	10.1%
삼성증권	과장 대리 계열사 전환배치	100	2013	9.3%	7.9%
	근속 3년 이상 소매부문 점포 통폐합 95→72	300	2014		
신한금투		90	2014		
하나대투	차장 이하 7년 이상 근속자 부부장 이상 3년 이상 근속자, 직원 8%	145	2014	37.1%	3.3%
	지점 축소(현 77개 지점) 2012년 10개, 2013년 10개, 2014년 6개		2014		
부국증권	근속 5년 대리급 이상[지점 4개 축소]	47	2014		
대신증권	지점축소 8개		2013		
KTB증권		100	2013	37.7%	1.1%
유진증권		50	2013	18.6%	0%
우리투자		412	2014	20.6%	4.3%
NH증권	직원 23%	196	2014	19.9%	0%
신한카드	부부장급 이상	90	2013		
삼성카드	2012년 100명, 2013년 100명	100	2013	42.7%	
HSBC	희망퇴직 소매금융 철수(10개). 지점 폐쇄11)	230	2013	46.1%	6.6%
씨티은행	5.19일 사측 희망퇴직 일방 발표		2014	27.2%	24.3%
	지점 191개 →56개 통폐합 목표(현 40개)				
SC은행	영업점 직원 대상 특별퇴직	200	2014		

* 자료: 1) 구조조정 현황은 사무금융노조 내부자료(2014.9) 재구성
2) 비정규직 현황은 고용노동부 고용공시제 원자료(2014.3) 재분석

〔표2〕 금융권 증권회사 임금유연화 실태 - 사무관리직 기준

사업장	지급기준	지급률	고정 상여금	변동 상여금
A증권	관리직 지원성과급제	영업직 평균성과급의 25%	700%	-
B증권	본사직원은 분기성과급 받음	지점에서 받은 성과급을 본사직원 1/n로 지급	-	-
C증권	경영성과급 관리직 성과급으로 전환	ROE달성도에 따라 차등적 PSR적용: 3.5~6%	-	-
D증권	인사고과	상여금을 500~700%로 차등 지급	-	○
E증권	-업적평가 등급기준 고정상여금 700%. - 영업직 고정상여금 400%	-5등급: 600% 4등급: 500% -3등급: 300% 2등급: 100% -1등급: 0%	700%	-

〔표3〕 금융권 증권회사 임금유연화 실태 - 영업직 기준

구분	지급기준	지급률	기본급 수준	성과급	
				개인	조직
A증권	$\Sigma(\text{개인영업 순수익} \times \text{보상비율}) - \text{개인별 인건비} \times \text{조정계수}$	- 일반주문 32%, - 사이버주문 27% - 3억원 초과시 33%~35%	기본급 동일	○	-
B증권	증권수익×지급율-개인비용	- 지급률 27.5%~44.0%	기본급 80%	○	○
C증권	-개인성과급 -AM based 배분수익(기여수익-인건비×2배)×PSR×평가계수 -BK based (기여수익-인건비)×PSR×평가계수	- PSR=20%~50% - PSR=10%~50%	기본급 90% (80%)	○	○
D증권	-영업이익×PSR. -영업이익=수익-(직접인건비×1)	- 지급률 27%~37%	기본급 동일	○	-
E증권	-리테일조직성과급 :리테일영업이익×4.5% -영업인센티브 :(주식영업이익-직급대표 인건비)×PSR(8~30%)		기본급 동일	○	-

〔부록〕 금융권(증권) 비정규직 실태와 문제점

〔부표1〕 300인 이상 상시 종사 대기업 비정규직 규모와 실태(단위: 천명, %)

		사업체 (개)	노동자 (천명)	정규직	비정규직(천명)			비정규직 비율(%)		
					계	직접 고용	간접 고용	계	직접 고용	간접 고용
전산업		2,942	4,358	2,735	1,623	750	873	37.3	17.2	20
제조업		919	1616	1155	461	61	401	28.5	3.8	24.8
서비스 산업	●생산자서비스	992	1098	619	479	378	100	43.6	34.5	9.1
	↳ 금융업	50	185	131	53	12	41	28.8	6.7	22.1
	↳ 은행	18	144	121	32	9	23	23.5	8.8	14.7
	↳ 증권	24	31	26	6	44	2	20.7	14.3	6.4
	↳ 생명	20	31	28	10	2	8	27.4	6.6	20.7
	↳ 손보	27	48	38	10	6	3	19.5	12.3	7.1
	↳ 카드	16	17	13	15	3	11	53.4	12.8	40.5
	●유통서비스	460	714	505	209	71	138	29.2	9.9	19.3
	↳ 소매업	87	225	146	79	35	44	35	15.5	19.5
	↳ 유통	21	151	98	52	17	35	41.2	12.4	29.9
	●개인서비스	142	227	116	11	68	43	48.9	30.1	18.8
	↳ 숙박업	32	43	23	20	9	10	46	21.4	24.6
	↳ 호텔	23	37	19	17	8	9	48.1	21.9	26.2
	●사회서비스	314	356	230	126	98	28	35.4	27.2	7.7
	↳ 보건업	144	144	114	30	15	15	21.1	10.7	10.4
	↳ 병원	101	96	77	19	9	9	14	6.6	7.4

* 자료 : 고용노동부 300인 이상 대기업 사업체 고용형태 공시자료 원자료 재분석(2014.3)

〔부표2〕 300인 이상 종사 ‘카드/캐피탈’ 비정규직 규모(단위: 명, %)

사업장	전체 노동자	직접 고용 인원	정규직	비정규직 규모			비정규직 비율(%)		
				계	직접 고용	간접 고용	계	직접 고용	간접 고용
KB국민카드	4,089	1,379	1,361	2,728	18	2,710	66.7	0.4	66.2
비씨카드	1,866	826	633	1,233	193	1,040	66.0	10.3	55.7
롯데카드	3,108	1,664	1,307	1,801	357	1,444	57.9	11.4	46.4
현대캐피탈	4,786	2,607	1,754	3,032	853	2,179	63.6	17.8	45.5
현대카드	3,623	2,035	1,448	2,175	587	1,588	60.0	16.2	43.8
하나에스케이카드	847	484	441	406	43	363	47.9	5.0	42.8
우리파이낸셜	729	443	324	405	119	286	55.5	16.3	39.2
롯데캐피탈	570	382	340	230	42	188	40.3	7.3	32.9
JB우리캐피탈	669	450	362	307	88	219	45.8	13.1	32.7
삼성카드	4,257	2,949	2,592	1,665	357	1,308	39.1	8.3	30.7
현대커머셜	557	430	320	237	110	127	42.5	19.7	22.8
A&P파이낸셜대부	1,265	1,057	768	497	289	208	39.2	22.8	16.4
아주캐피탈	758	651	497	261	154	107	34.4	20.3	14.1
한국씨티그룹캐피탈	376	332	332	44	0	44	11.7		11.7
웰컴크레디라인대부	400	388	380	20	8	12	0.1	0.0	0.0
삼성카드고객서비스	1,274	1,274	730	544	544	0	42.7	42.7	
전체 (평균)	29,174 (1,823)	17,351 (10,844)	13,589 (849)	15,585 (974)	3,762 (235)	11,823 (739)	53.4	12.8	40.5

〔부표3〕 300인 이상 종사 ‘은행’ 비정규직 규모(단위: 명, %)

사업장	전체 노동자	직접 고용 인원	정규직	비정규직 규모			비정규직 비율(%)		
				계	직접 고용	간접 고용	계	직접 고용	간접 고용
신한은행	19,296	14,786	14,253	5,043	533	4,510	26.1	2.8	23.4
씨티은행	5,578	4,223	4,058	1,520	165	1,355	27.2	3.0	24.3
산업은행	3,744	2,934	2,823	921	111	810	24.6	3.0	21.6
외환은행	10,136	7,959	7,544	2,592	415	2,177	25.6	4.1	21.5
대구은행	3,973	3,225	2,918	1,055	307	748	26.6	7.7	18.8
하나은행	11,519	9,443	9,099	2,420	344	2,076	21.0	3.0	18.0
국민은행	26,164	21,684	21,036	5,128	648	4,480	19.6	2.5	17.1
우리은행	18,634	15,520	15,229	3,405	291	3,114	18.3	1.6	16.7
스탠다드 차타드은행	6,243	5,144	4,869	1,374	275	1,099	22.0	4.4	17.6
경남은행	2,744	2,358	2,178	566	180	386	20.6	6.6	14.1
농협중앙회	8,184	7,150	4,703	3,481	2,447	1,034	42.5	29.9	12.6
광주은행	2,000	1,759	1,652	348	107	241	17.4	5.4	12.1
부산은행	3,896	3,442	3,000	896	442	454	23.0	11.3	11.7
제주은행	486	433	414	72	19	53	14.8	3.9	10.9
수협중앙회	3,285	2,953	2,763	522	190	332	15.9	5.8	10.1
홍콩상하이 은행서울지점	761	711	410	351	301	50	46.1	39.6	6.6
전북은행	1,152	1,085	1,011	141	74	67	12.2	6.4	5.8
농협은행	16,860	16,591	13,707	3,153	2,884	269	18.7	17.1	1.6
전체	144,655	121,400	111,667	32,988	9,733	23,225			
평균	(8,036)	(6,744)	(6,204)	(1,833)	(541)	(1,292)	22.8	6.7	16.1

* 주 : 국책, 시중, 지방은행 중 IBK기업은행은 원자료에서 찾지 못해 제외된 것임.

[부표4] 300인 이상 종사 '증권' 비정규직 규모(단위: 명, %)

사업장	전체 노동자	직접 고용 인원	정규직	비정규직 규모			비정규직 비율(%)		
				계	직접 고용	간접 고용	계	직접 고용	간접 고용
대우증권	3,651	3,176	2,608	1,043	568	475	28.5	15.5	13.0
한국투자증권	2,868	2,522	2,100	768	422	346	26.7	14.7	12.0
현대증권	2,897	2,559	2,393	504	166	338	17.3	5.7	11.6
신영증권	703	624	602	101	22	79	14.3	3.1	11.2
SK증권	919	826	616	303	210	93	32.9	22.8	10.1
삼성증권	3,241	2,984	2,938	303	46	257	9.3	1.4	7.9
동양증권	1,851	1,703	1,614	237	89	148	12.8	4.8	7.9
아이엠투자증권	331	308	105	226	203	23	68.2	61.3	6.9
키움증권	558	522	442	116	80	36	20.7	14.3	6.4
한화투자증권	1,296	1,223	1,106	190	117	73	14.6	9.0	5.6
KB투자증권	481	458	407	74	51	23	15.3	10.6	4.7
메리츠증권	973	930	632	341	298	43	35.0	30.6	4.4
우리투자증권	3,128	2,991	2,482	646	509	137	20.6	16.2	4.3
하나대투증권	1,877	1,814	1,179	698	635	63	37.1	33.8	3.3
KT투자증권	350	346	218	132	128	4	37.7	36.5	1.1
HMC투자증권	934	924	766	168	158	10	17.9	16.9	1.0
미래에셋증권	1,900	1,891	1,725	175	166	9	9.2	8.7	0.4
NH농협증권	871	871	697	174	174	0	19.9	19.9	
교보증권	972	972	921	51	51	0	5.2	5.2	
동부증권	927	927	763	164	164	0	17.6	17.6	
IBK투자증권	604	604	412	192	192	0	31.7	31.7	
유진투자증권	725	725	590	135	135	0	18.6	18.6	
이트레이드증권	419	419	315	104	104	0	24.8	24.8	
하이투자증권	953	953	853	100	100	0	10.4	10.4	
전체 평균	33,429 (1,392)	31,272 (1,303)	26,484 (1,104)	6,945 (289)	4,788 (200)	2,157 (90)	20.7	14.3	6.4

[부표5] 300인 이상 종사 '생보' 비정규직 규모(단위: 명, %)

사업장	전체 노동자	직접 고용 인원	정규직	비정규직 규모			비정규직 비율(%)		
				계	직접 고용	간접 고용	계	직접 고용	간접 고용
홍국생명보험	1,344	603	508	836	95	741	62.2	7.0	55.1
푸르덴셜생명보험	697	468	446	251	22	229	36.0	3.1	32.8
신한생명보험	2,051	1,422	1,404	647	18	629	31.5	0.8	30.6
동양생명보험	1,327	943	707	620	236	384	46.7	17.7	28.9
서울보증보험	2,077	1,479	1,235	842	244	598	40.5	11.7	28.7
삼성생명보험	9,807	7,092	6,810	2,997	282	2,715	30.5	2.8	27.6
우리아비바생명보험	477	350	329	148	21	127	31.0	4.4	26.6
ING생명보험	1,368	1,014	987	381	27	354	27.8	1.9	25.8
kdb생명보험	1,105	852	704	401	148	253	36.2	13.3	22.8
교보생명보험	6,502	5,046	4,561	1,941	485	1,456	29.8	7.4	22.3
라이나생명보험	696	545	449	247	96	151	35.4	13.7	21.6
메트라이프생명보험	735	654	644	91	10	81	12.3	1.3	11.0
PCA생명보험	432	387	365	67	22	45	15.5	5.0	10.4
미래에셋생명보험	1,465	1,314	1,299	166	15	151	11.3	1.0	10.3
알리안츠생명보험	1,388	1,374	1,307	81	67	14	5.8	4.8	10.0
현대라이프생명보험	682	657	501	181	156	25	26.5	22.8	3.6
한화생명보험	4,839	4,681	4,589	250	92	158	5.1	1.9	3.2
동부생명보험	572	554	505	67	49	18	11.7	8.5	3.1
농협생명보험	1,015	999	525	490	474	16	48.2	46.6	1.5
글로벌에셋코리아 보험(대리점)	721	721	651	70	70	0	9.7	9.7	
전체	39,300	31,155	28,526	10,774	2,629	8,145	27.4	6.6	20.7
(평균)	(1,965)	(1,558)	(1,426)	(539)	(131)	(407)			

[부표6] 300인 이상 종사 '손보' 비정규직 규모(단위: 명, %)

사업장	전체 노동자	직접 고용 인원	정규직	비정규직 규모			비정규직 비율(%)		
				계	직접 고용	간접 고용	계	직접 고용	간접 고용
AIA인터내셔널 리미티드	1,657	1,182	691	491	16	475	29.6	0.9	28.6
홍국화재해상보험	2,565	1,916	949	967	318	649	37.6	12.3	25.3
삼성화재해상보험	9,078	7,691	5,796	1,895	508	1,387	20.8	5.5	15.2
롯데손해보험	2,143	1,960	1,402	558	375	183	26.0	17.4	8.5
더케이손해보험	929	857	633	224	152	72	24.1	16.3	7.7
LIG손해보험	4,127	3,845	3,060	785	503	282	19.0	12.1	6.8
애니카자동차 손해사정서비스	1,774	1,661	1,266	395	282	113	22.2	15.8	6.3
동부화재해상보험	5,790	5,530	5,072	458	198	260	7.9	3.4	4.4
메리츠화재해상보험	4,094	3,965	2,594	1,371	1,242	129	33.4	30.3	3.1
한화손해보험	3,175	3,088	2,845	243	156	87	7.6	4.9	2.7
농협손해보험	587	571	245	326	310	16	55.5	52.8	2.7
현대하이카다이렉트 자동차보험	1,047	1,019	611	408	380	28	38.9	36.2	2.6
MG손해보험	852	835	595	240	223	17	28.1	26.1	1.9
현대하이카손해사정	790	777	753	24	11	13	3.0	1.3	1.6
삼성생명서비스 손해사정	1,906	1,897	1,714	183	174	9	9.6	9.1	0.4
현대하이라이프 손해사정	729	726	679	47	44	3	6.4	6	0.4
현대해상화재보험	3,352	3,340	3,129	211	199	12	6.2	5.9	0.3
삼성화재 손해사정서비스	1,241	1,240	1,200	40	39	1	3.2	3.1	0.1
동부CNS자동차 손해사정	687	687	402	285	285	0	41.4	41.4	
동부CAS 손해사정	342	342	338	4	4	0	1.1	1.1	
동부자동차보험 손해사정	738	738	725	13	13	0	1.7	1.7	
악사손해보험	1,865	1,865	1,197	668	668	0	35.8	35.8	
AIG손해보험	364	364	324	40	40	0	10.9	10.9	
에이원손해사정	356	356	350	6	6	0	1.6	1.6	
LIG자동차손해사정	1,254	1,254	1,082	172	172	0	13.7	13.7	
KCA손해사정	307	307	297	10	10	0	3.2	3.2	
한화손해사정	456	456	330	126	126	0	0.7	0.7	
전체 (평균)	52,205 (1,934)	48,469 (1,795)	38,279 (1,418)	10,190 (377)	6,454 (239)	3,736 (138)	19.5	12.3	7.1